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 일제조사·제도 개선 '절실'

## 캠페인 결산

의 최종 요구다.

2001년은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관심 환기 차원에 머물렀던 불교문화재 도난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확대된 해다.

비지정 문화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조계종 '사찰 방화·방화에 관한 명' 마련,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실시 등 굵직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난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결국 해법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교계 내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과= 연초부터 잇따른 대규모 문화재 사범 검거는 불교문화재 도난에 대한 관심을 불교계 바깥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찰 문화재 도난에 대한 특별 지시(5월), 조계종 총무원의 종합대책 발표(5월),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7월),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8월), 내년 추경예산에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반영(9월)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 해 문화재청에서 입법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절도범과 같은 적용을 받았던 비지정 문화재 처벌이 강화됐다. 은닉·보관 행위 별도 처벌, 은닉·보관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지정 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배제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문화재보호법 개정 중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셈이지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법원평형 등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개정 노력을 펼친다는 게 조계종 방침이다.

▶경찰청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족, 사범단속반 인원 확대= 불교계의 문화재 전담반 설치 요구가 형식적이었던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 전담 수사관이 경찰청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마다 1명씩 지정됐다. 2명이 전국을 담당하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도 내년 5명으로 확대된다. '마약 수사과' 같은 전담 부서가 검찰에도 설치돼 불교계와 검·경·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교계

▶자세 노력 강화= 정부 요구 사항과는 별도로 불교계 자체 노력도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방화·방화에 관한 명'을 마련 2002년 4월까지 종단 소속 모든 사찰이 의무적으로 방화·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염연구원 채용 의무화 등 소방물품 환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도난= 올해 발생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은 모두 10건(조계종 총무원, 2001년 11월 현재, 1999년 16건, 지난 해 14건)에 비해 도난 건수는 감소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4

##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키로 "불교계 자체 노력있어야 실효"



◇지난 8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점이 도난 당해 99년 23점, 지난 해 20점(회수 14점 제외)에 비해 점수는 줄지 않았다. 한꺼번에 많은 문화재가 도난 당하고 있고, 근래 조성된 불상의 복장유물도 도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해법은 없나?=" 내년부터 실시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해법의 열쇠'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된 비지정문화재는 도난 당해도 찾을 길이 없다. 일제조사는,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직 관리 목록에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시킴으로써 누구나 어디에 있던 것인지 알 수 있게 해 도난 당해도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계 자체 노력이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앞서 종단과 사찰에서 먼저 담당 인원과 예산 확충,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 문화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형진 기자

# "고증없는 미륵사 복원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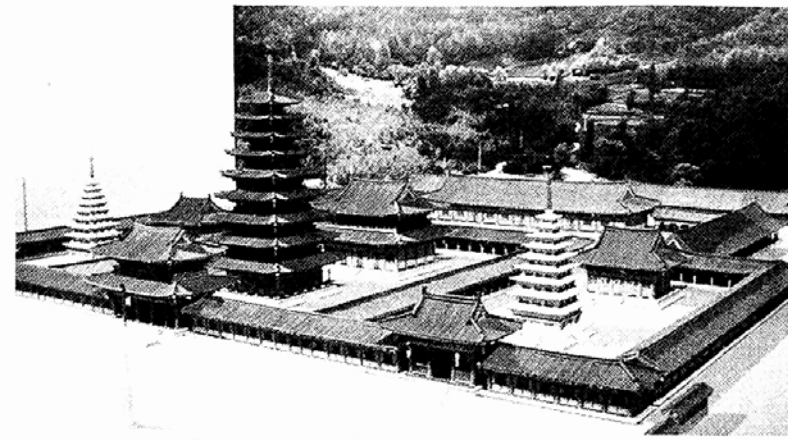
문화재위원회의  
익산·미륵사 복원계획 제동

"철저한 고증 없는 문화재 복원은 안 된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사 복원 계획에 문화재청이 '철저한 고증'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3분과(사적)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익산시가 제출한 미륵사(사적 150호) 복원 학술용역 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복원 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륵사 복원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한 복원이 가능할 때 추진한다는 조건부 수용"이었음을 분명히 하며 "백제시대 고건축 등 미륵사에 대한 고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륵사터는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1980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사찰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중앙홀에 전시된 미륵사기암 모형(1/30 축적).

전체적인 규모나 기암 배치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체적 형태를 밝혀줄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추정에 의한 새로운 건축물'이라는 위험성이 반대 의견으로 대두됐다.

복원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익산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미륵사 복원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 모형을 제작해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내에 전시하기로 하는 한편 고증 자료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익산시는 한국건축역사학회에 의뢰,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외 문헌과 발굴 자료, 고분 벽화와 고건축 자료를 토대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방향, 복원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학술 조사를 실시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 "인연 - 연기 개념 혼용"

보조사상학 '연기론 규명' 학술발표회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으로 있는 연기론의 개념을 규명한 학술발표회가 22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주최로 열렸다.

이날 불전의 한역 단계에서부터 교학 형성에 이르기까지 연기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살핀 계한 스님(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처음부터 연기라는 용어가 쓰인 것이 아니다. 한역이 시작된 것은 2세기 후한시대지만 서진의 촉법호(239~316) 때 이르러서야 '연기' 또는 '십이인연'이라는 번역어가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후대의 구마라집이 <묘법연화경>을 번역하면서 한 번도 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인연'이라 번역하고 있고, 범본이 남아 있는 <중론>의 '구경계'에서도 연기 대신 인연이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기'와 '인연'이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인다. 신역을 대표하는 당나라 현장(499~664)의 번역은 대부분 연기로 통일돼 있지만 <대반야경>에서는 무자성(無自性), <설대승론>에서는 별성자성

연기(別性自性緣起)라 번역하는 등 연기로 번역하는 용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한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니다나(泥陀那)를 연기로 번역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연기의 용례에서 연기 사상의 허용범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철(동국대) 교수는 대승 불교의 핵심 저작인 용수의 <중론> 주석가들을 중심으로 연기의 어의(語義)에 대한 논쟁을 살폈다. <대승중관석론>을 쓴 안혜와 <반야중론>의 창변은 승의제와 세속제를 구분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안혜는 연기를 '인과 연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정의하지만 창변의 연기 해석은 다만 이것이 존재하면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발생하기에 이것이 발생한다'는 차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율칭은 <정명구론>에서 연기를 '인과 연에 상대하여 존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 "진각국사 탐호 '圓照' 아닌 '圓照'"

남도불교문화연구원 '불교문화연구' 8집

남도불교문화연구원(회장 천득영 전남대 교수)은 최근 고려대에 조성된 전남지역의 금석문 원문 자료를 모은 <불교문화연구> 제8집을 펴냈다. 탐비 등에 새겨진 금석문 기록이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고려시대 이전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1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구회는 2년여 동안 발굴을 팔아 직접 탁본하고 현장에서 판독해 <조선금석총람> 등 기존 금석문 원문자료들과 일일이 대조, 비교하는 과정에서 송광사 16조사 가운데 두 명의 탐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새로 확인했다. 제2세인 진각국사의 탐호는 '원소(圓照)'가 아니라 '원조(圓照)'임을 순천 송광사 광원암 진각국사 부도에서 확인했고, 비문에는 '정조(靜照)'로 나와 있음을 발견했다. 부도를 먼저 조성하고 탐을 세우는 관습을 볼 때 이는 오자가 분방했다는 것이 연구회 측 판단이다.

기존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기존 자료에서의 오 탐자를 바로잡고, 탁본 자료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었던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다. 탁본만으로는 판독이 쉽지 않은 고종 삼림리 삼층석탑 명문 조사 과정에서 '동량(棟梁)'의 '량(梁)'은 '량(梁)'의 오자임을 밝혀냈다. 보물 1309호인 영암 암길리 암각매항비의 명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송광사 광원암 진각국사 부도 탁본 모습.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싼가?

오해를 모르는 분을 위해 오해에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씁니다. -효사-

육임 신단(新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다 적혀 있어 쓰여진 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은 자제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틀이면, 낮 사(巳)시(9:32~11:32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안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하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식·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화 오자마자, 가서 만나자마자 대뜸 내뱉는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필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알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가 즉시 판단되고, 또 말해 줄 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을 시작·중간·결과로 나누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안에 다 써졌고, 그 귀신을 제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생타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수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뱉을 수 있도록 써 놨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떠난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은 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이 제압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놨습니다.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상속·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혔으니 이를 보시면 참으로 큰 것이 얻어 집니다.
-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 뒷면에, 그 사람 떠난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비천자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계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에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떼서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13권·비인더덕·크기: 540×380×30·지질: 스노우우림  
주문전화: (02)993-8680  
입금처: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민·도시출판 부문  
\*각종 카드로 결제 분은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1,300,000원  
(일별 삼십만원)

육임1년 신수리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000원까지 8월 미액 모조)  
보는 날짜와 시간만 알면 그것을 보고 알뿐만 아니라 심오하게 짐작합니다. 때별·월별 길흉이 신중하게 적혀 있습니다.